

Homepage

C H O I W O N G Y U
P O R T F O L I O

S e l e c t e d w o r k
2 0 1 9 - 2 0 2 4

<https://www.choiwongyustudio.com>

최원규

20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개인전

- 2024년 Oblivion:Imprinted III / Space O / 서울
- 2024년 And, It last / Pier2 Art Center / 가오슝, 대만
- 2024년 On the line / bynowhere / 광주
- 2023년 Oblivion:Imprinted / 봉산문화회관 / 대구
- 2022년 Oblivion:Reflected / 대구예술발전소 / 대구
- 2021년 Breath – Lifescape / Space9 / 서울
- 2020년 Breath – The way back –공공미술 프로젝트 / 부산
- 2020년 Breath-The forest of oblivion / 홍티아트센터 / 부산
- 2019년 Bitter sweet syphony / Studio B / 서울

레지던시

- 2024년 Pier2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 가오슝, 대만
- 2022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 광주
- 2021년 대구예술발전소 / 대구
- 2020년 홍티 아트 센터 / 부산

단체전

- 2024년 디지털 로맨스 / 대구 아트 팩토리 / 대구
- 2024년 Under the surface /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 광주
- 2023년 가장 가깝고 은밀한 역사 /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 부산
- 2023년 Hoppy together / 예술지구 P / 부산
- 2022년 북변일기 / 비비갤러리 / 김포
- 2021년 홍티에서 홍티로 / 홍티예술촌 / 부산
- 2021년 Light here, light now / 강남구청 / 서울
- 2020년 Rainbow wire / F1963,석천홀 / 부산
- 2019년 Inside out / 수창청춘맨션 / 대구

존재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 분명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음이라는 존재’를 잊고 사는 것이다. 세상 속에 충만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산소를 품은 공기는 물론이고 태양이라는 광원에서 나온 백색의 복사광 혹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보이지 않는 자외선은 그러한 것들이다. 물체나 그것이 지닌 운동 능력이라는 에너지는 또 어떠한가?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이다. 존재로 충만해서 오히려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은 ‘존재 인식’의 아이러니다.

숨을 쉰다는 행위 역시 다르지 않다. 숨이란 생물이 삶을 지속하는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너무 쉽게 그것을 지속하는 까닭에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잊고 산다. 무엇보다 삶의 주체가 입과 코 그리고 허파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지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들숨, 날숨과 같은 ‘삶을 지속하려는 부단한 의지 행위’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다.

나의 작업에서 ‘숨’은 그러한 존재이다. 나에게 ‘존재 인식’의 아이러니는, ‘숨’을 주제로 삼고 현실적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가득한 시선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 존재의 삶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지며 이것은 그대로 시각 언어로 창작된다.

망각된 숨의 흔적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된다. 어느 골목 어귀에서 하릴 없이 하루를 붙박여 보내는 이름 모를 노년의 하루나, 분진이 날리는 작은 공장에서 붉은 섬광에 묻혀 매일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창작하여 창작의 근간을 다진다. 설치작업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부산물과 때로는 이야기의 주체들에게 증여 받은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오브제를 주재료로 적용하여 심상적인 풍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시간성이 담긴 오브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의 상징인 것이다.

공장 바닥에 무수히 튀어 점점이 굳어지는 철 가루나, 재제소의 거대한 기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톱밥들과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의 과정에서 반드시 생산되지만,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되는 부산물들은 치열한 삶의 상징이다.

폐기된 부산물을 재료로 선별하는 과정의 노동 또한 나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생산 과정에서 1차적인 변형을 거쳐 생성되는 ‘무가치의 존재’ 들을 수 차례의 선별과정을 거쳐 작업에 적용하며, 그것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 또한, ‘존재하나 망각된’ 이야기들의 가치 확인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망각된 숨의 흔적들’. 나는 그러한 흔적들을 수집하여 입체물의 재료로 적용하고, 건축적인 요소로 조합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각적 내러티브를 완성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자 한다.

‘내’가 속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과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삶의 현장 안에서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술

척박하고 차가운 현실 안에서 의지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예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치 확인의 과정, 이것이 작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이자 동력이다.



And, It last part 1 2024 / Chinese paper, wire, projection mapping. / Variable installation

나는 그 망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났던 기억을 가지고, 이 곳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기억이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그 순간이 또 다른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여기, 내 앞에 선 당신에게

작업을 막 시작할 즈음,

언제든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한 친구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매일 밤, 가로등도 없는 흙 길을 바퀴도 온전치 못한 수레를 끌고 버려진 나무를 주워 모아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목적 없이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이 지리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에 매일의 노동으로 스스로 망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러한 인고의 시간이 1년에 다가갈 즈음, 내 존재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처음의 작업 하나로 저 바다 건너 PAIR 라는 곳은 흔쾌히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covid-19 의 시대는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있던 나에게 작가로서 좀 더 단단해질 4년의 시간을 주었고. 한국에서 나에게 기회를 준 여러 레지던시에서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보내며 나만의 세계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기억해주었던 이곳에서 3개월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망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났던 기억을 가지고, 이 곳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기억이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그 순간이 또 다른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당신과 내가 함께한 순간이, 또 다른 당신이 그 기억을 마주하는 그 찰나가 조금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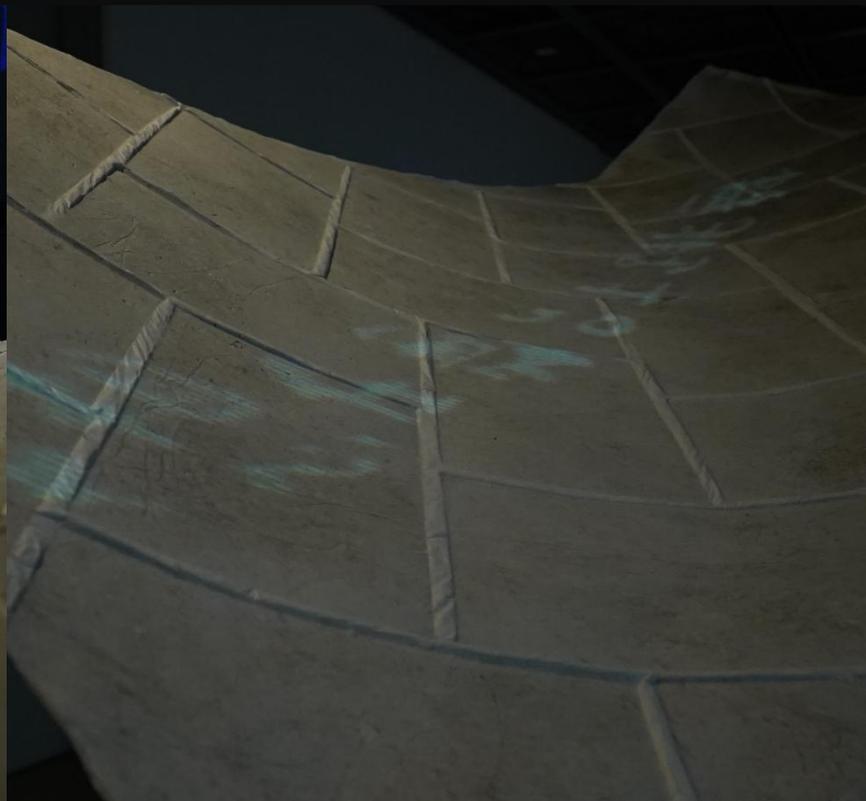
나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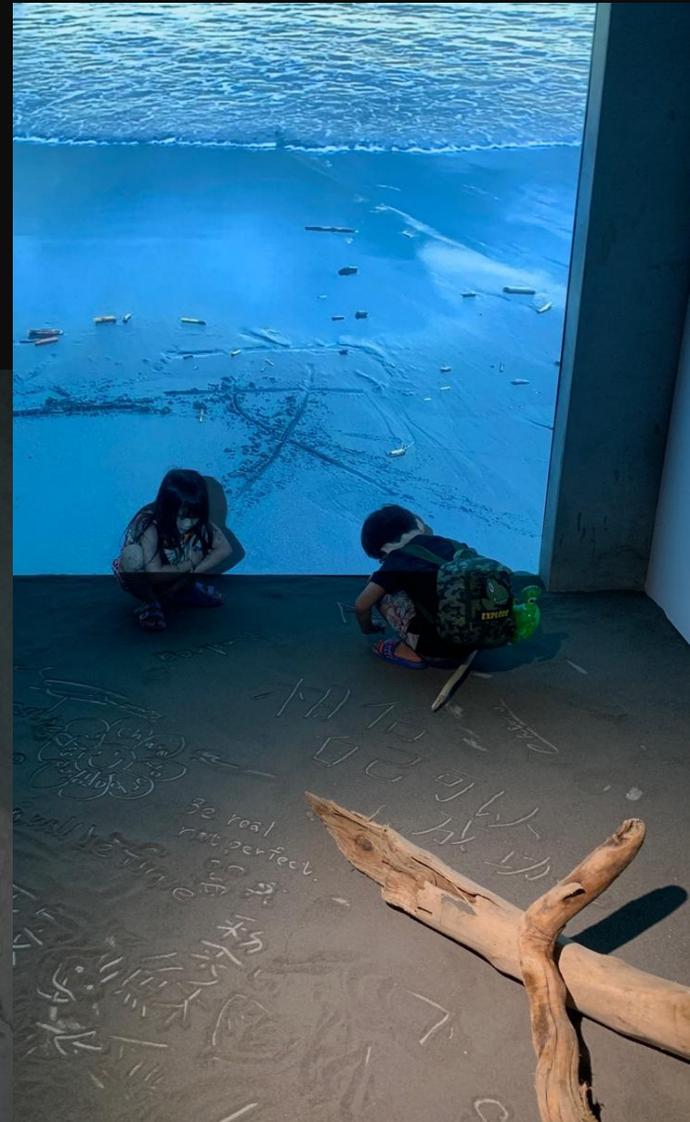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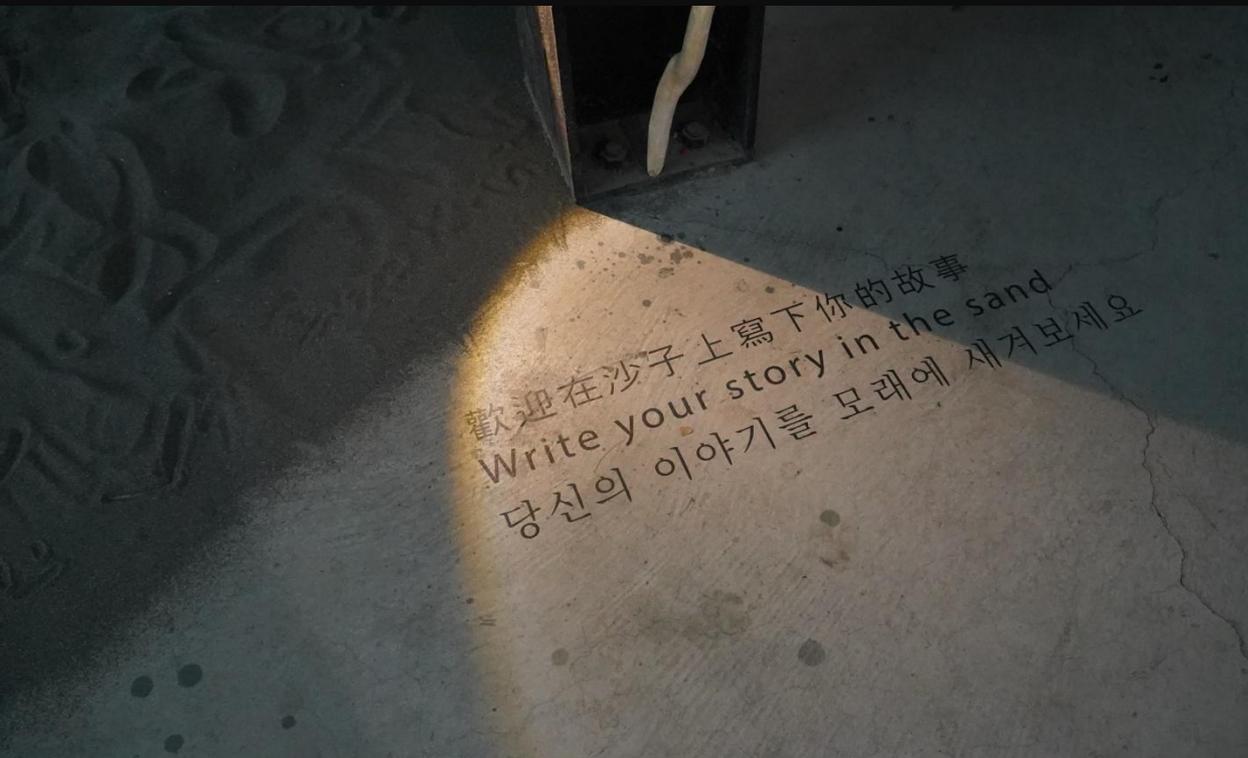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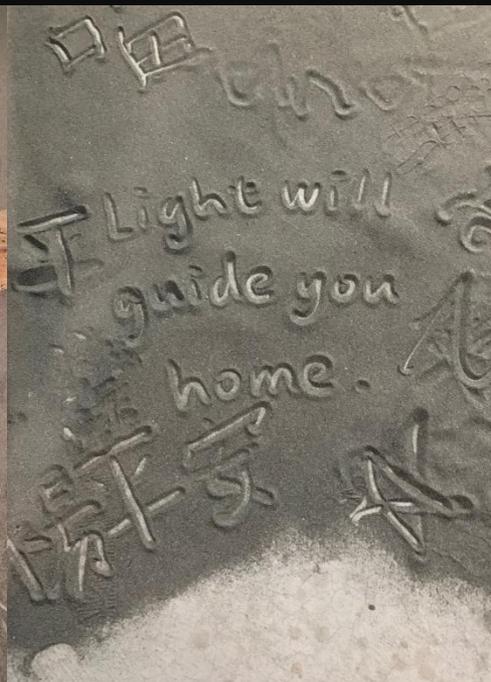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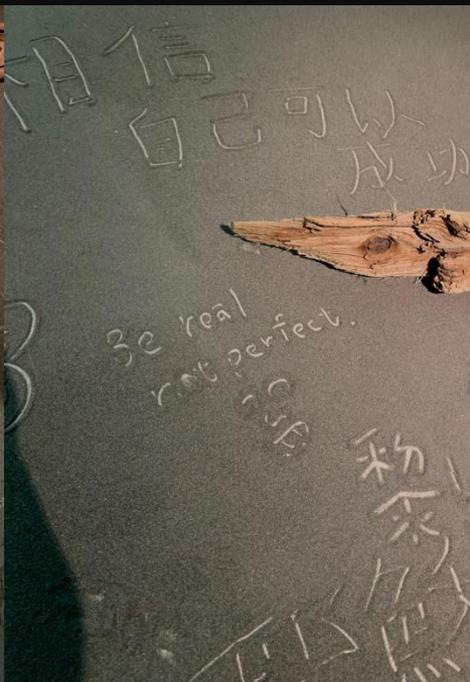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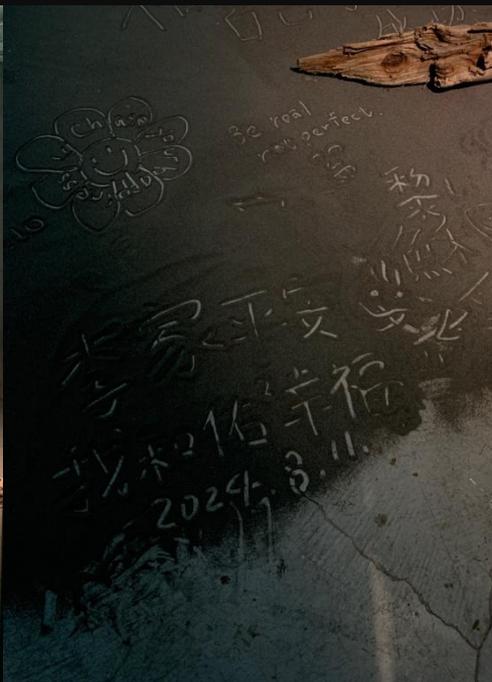




And, It last part 2- 2024 / Single channel video, sand and wood collected from Qijin island, / Variable installation
당신의 이야기는 쉼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금방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처럼요.

Video link https://youtu.be/_KFRwoyVpP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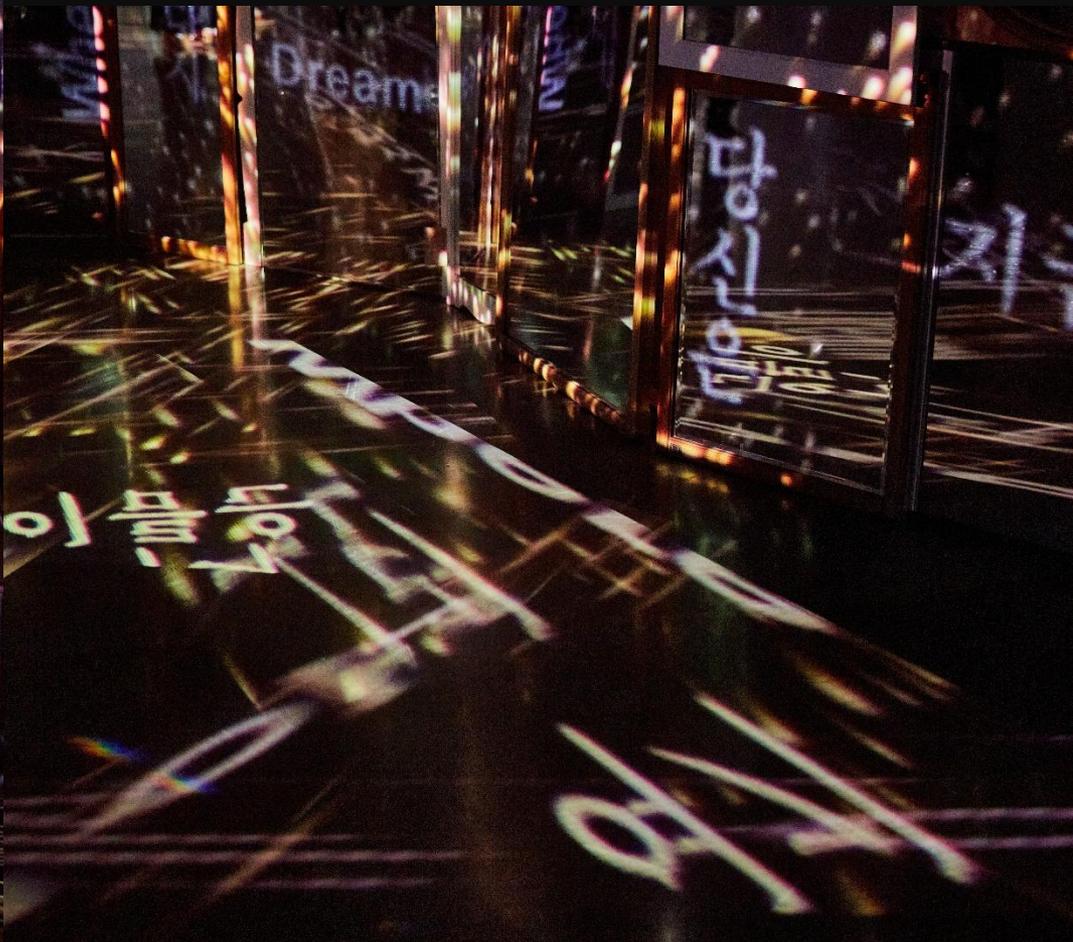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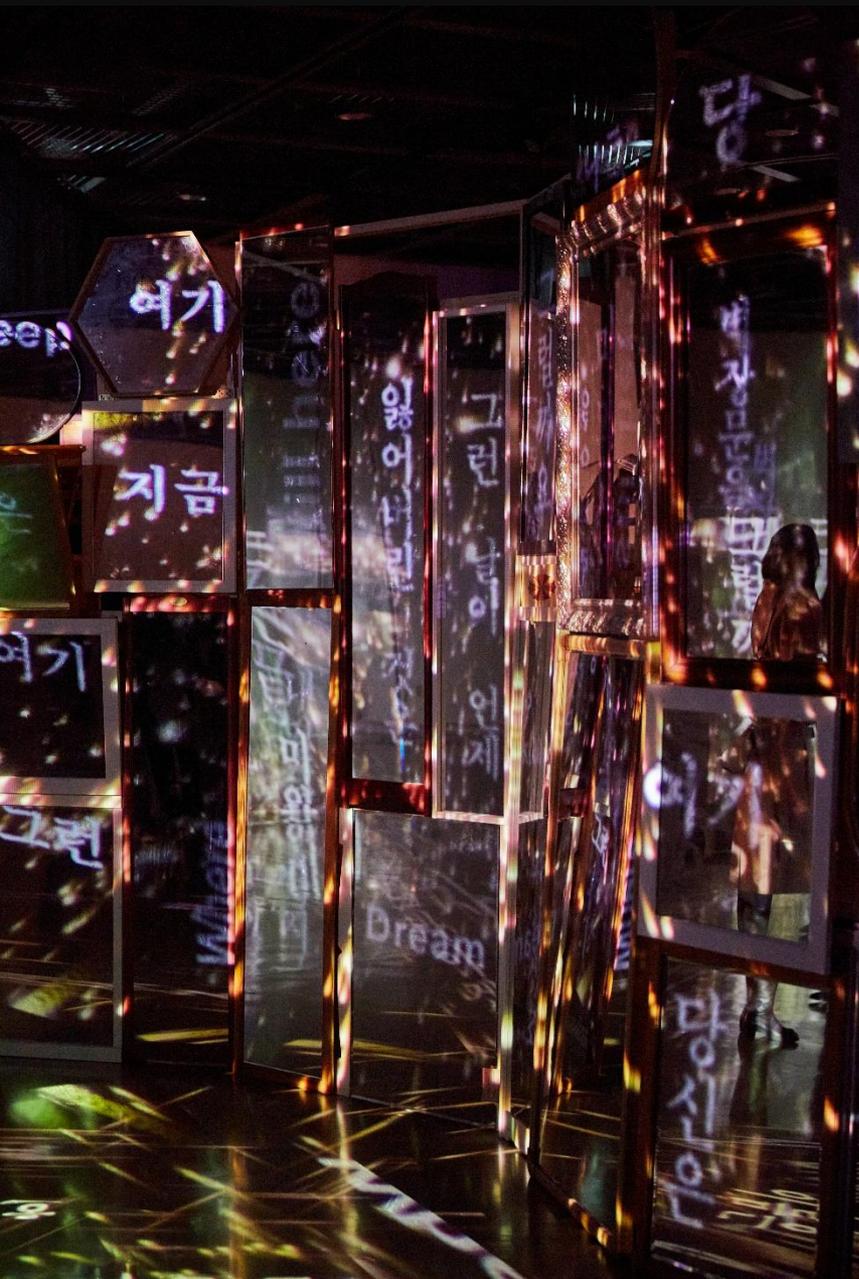
Oblivion, Imprinted- 2021 / Projection mapping on 200 mirrors collected from citizens, stories. / 20MX18M H=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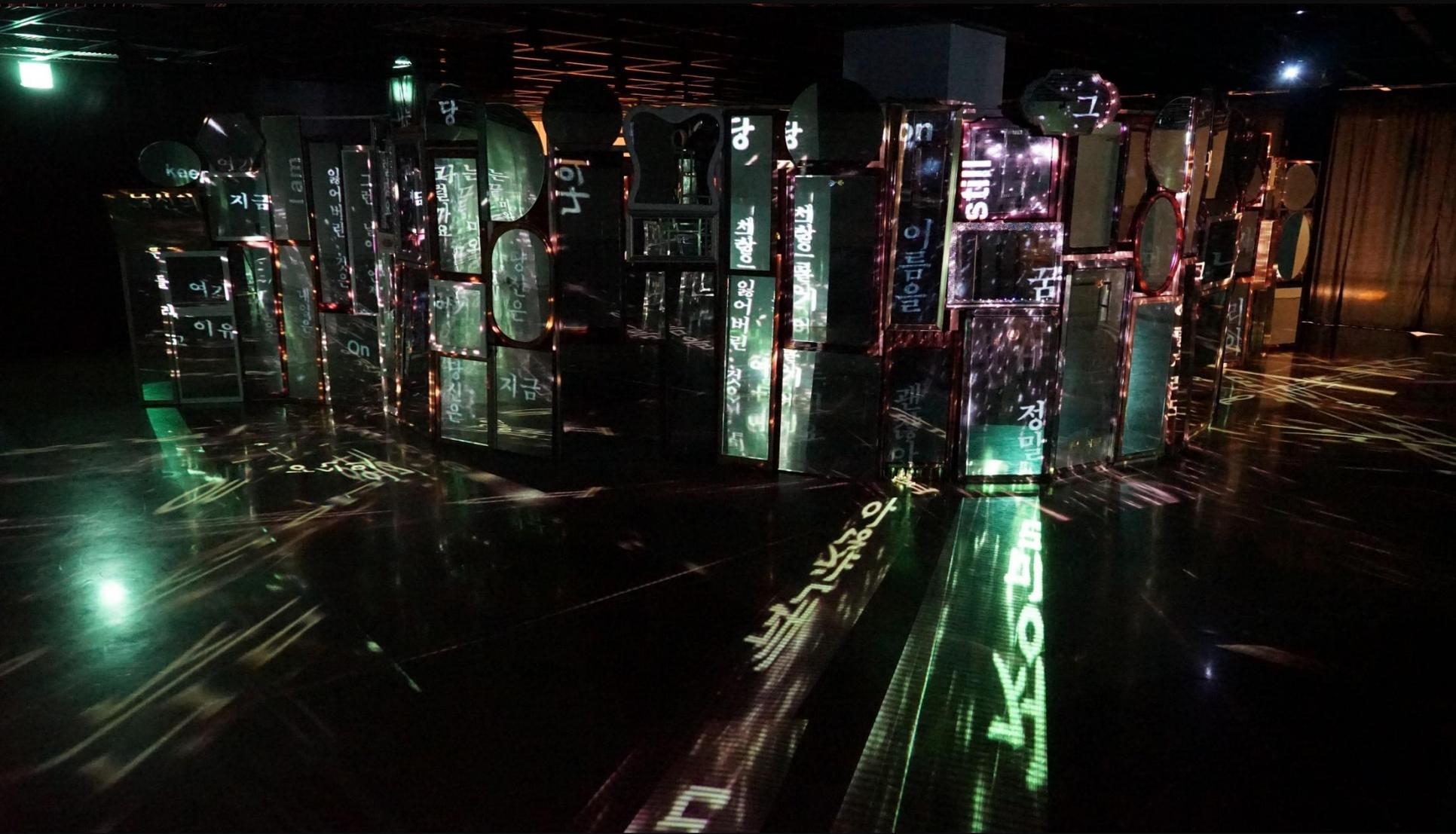
누군가의 과거, 현재를 비추던 프레임 안에 존재의 이미지가 점멸한다. 이미지는 우리에게 닿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친다.

Exhibition VR 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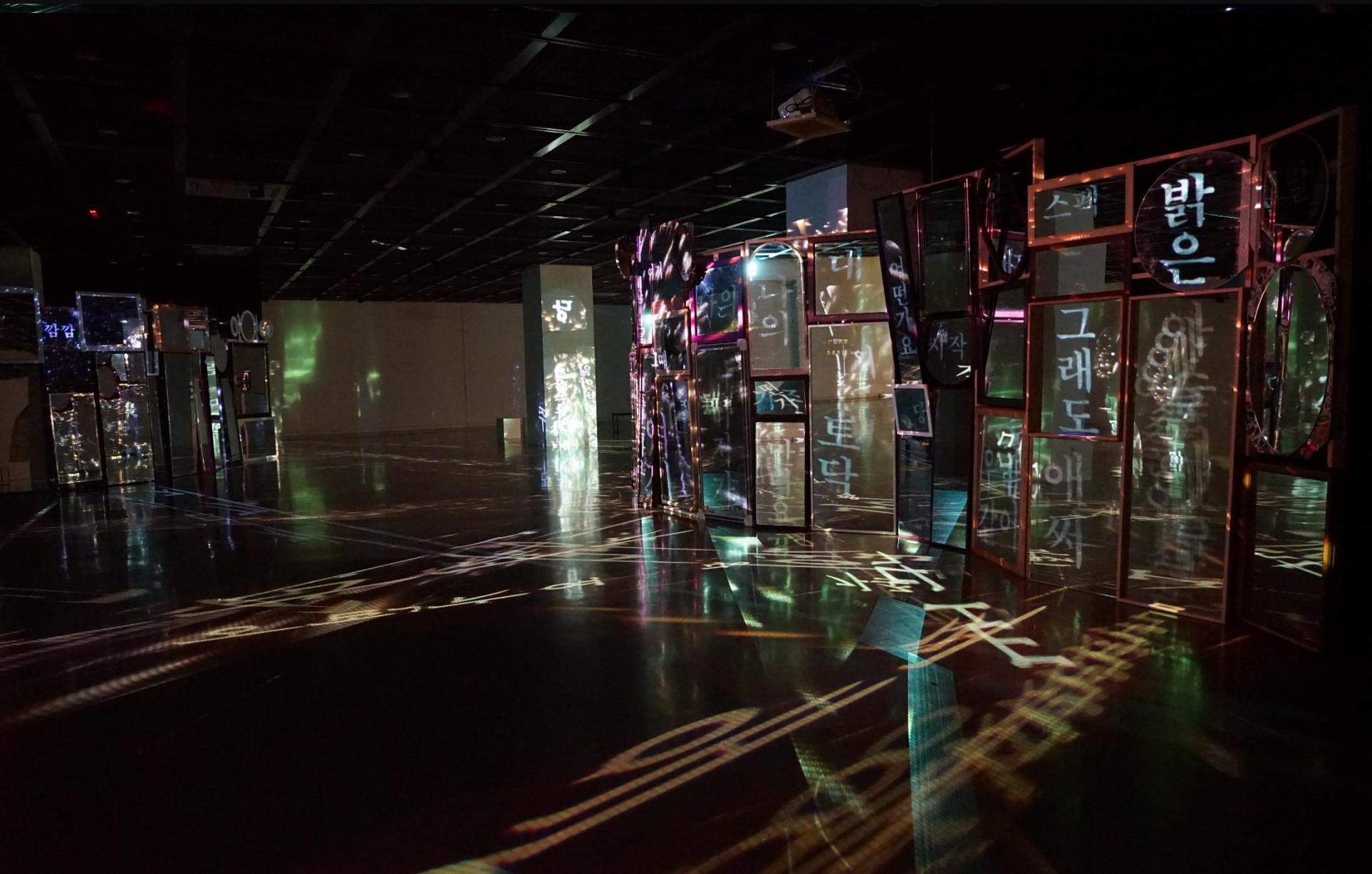
<http://my.matterport.com/show/?m=zyoQr46qe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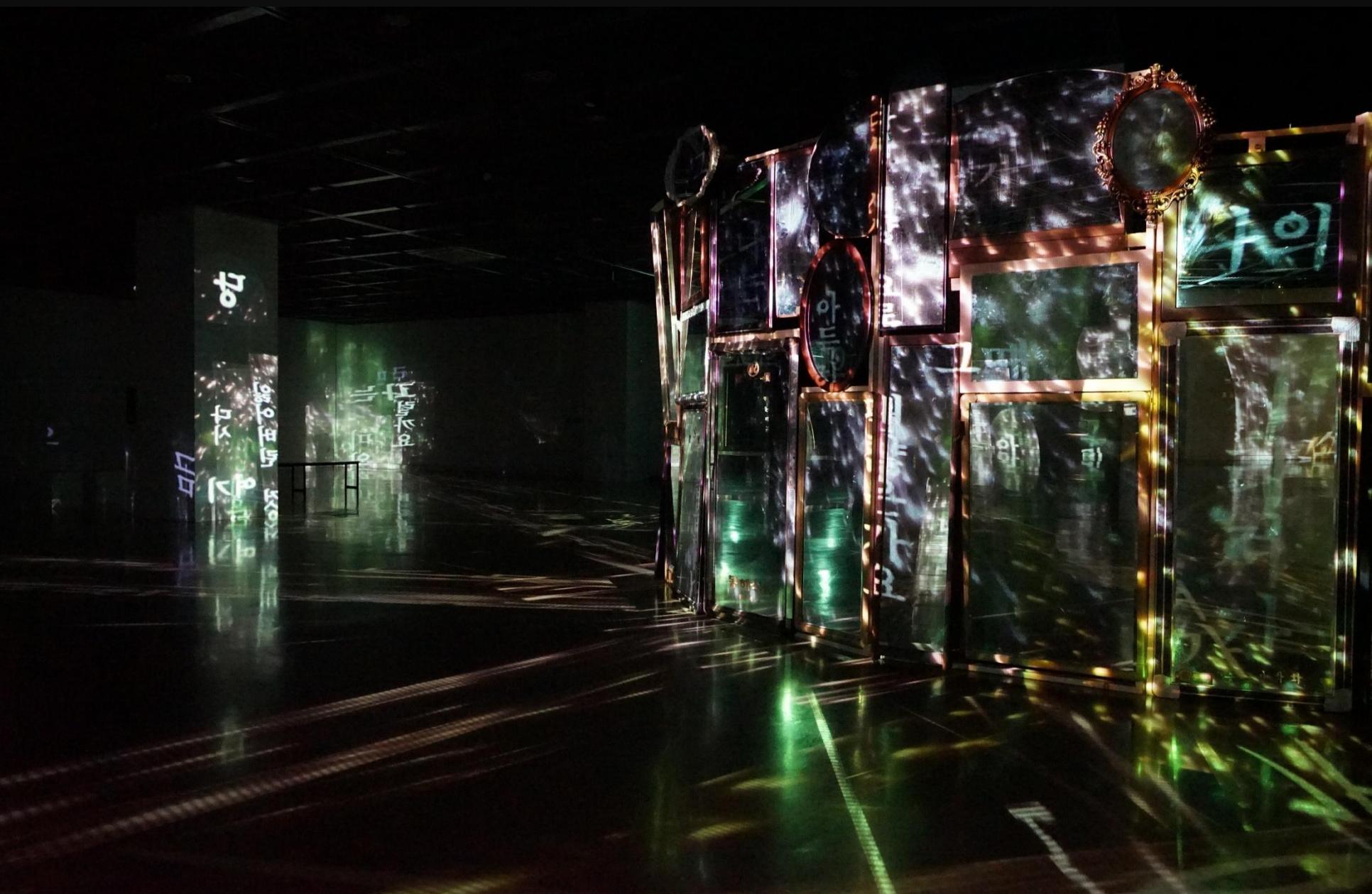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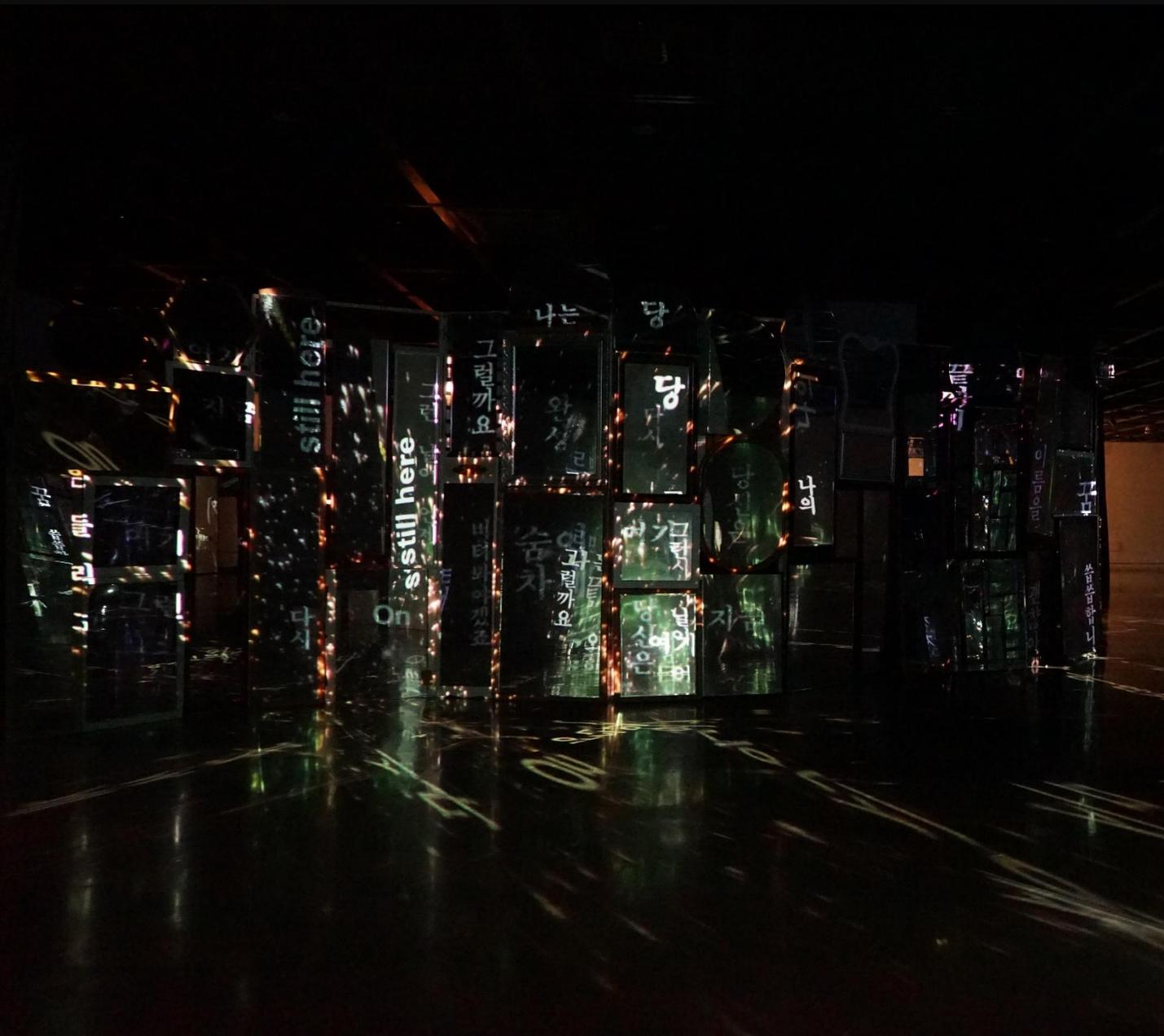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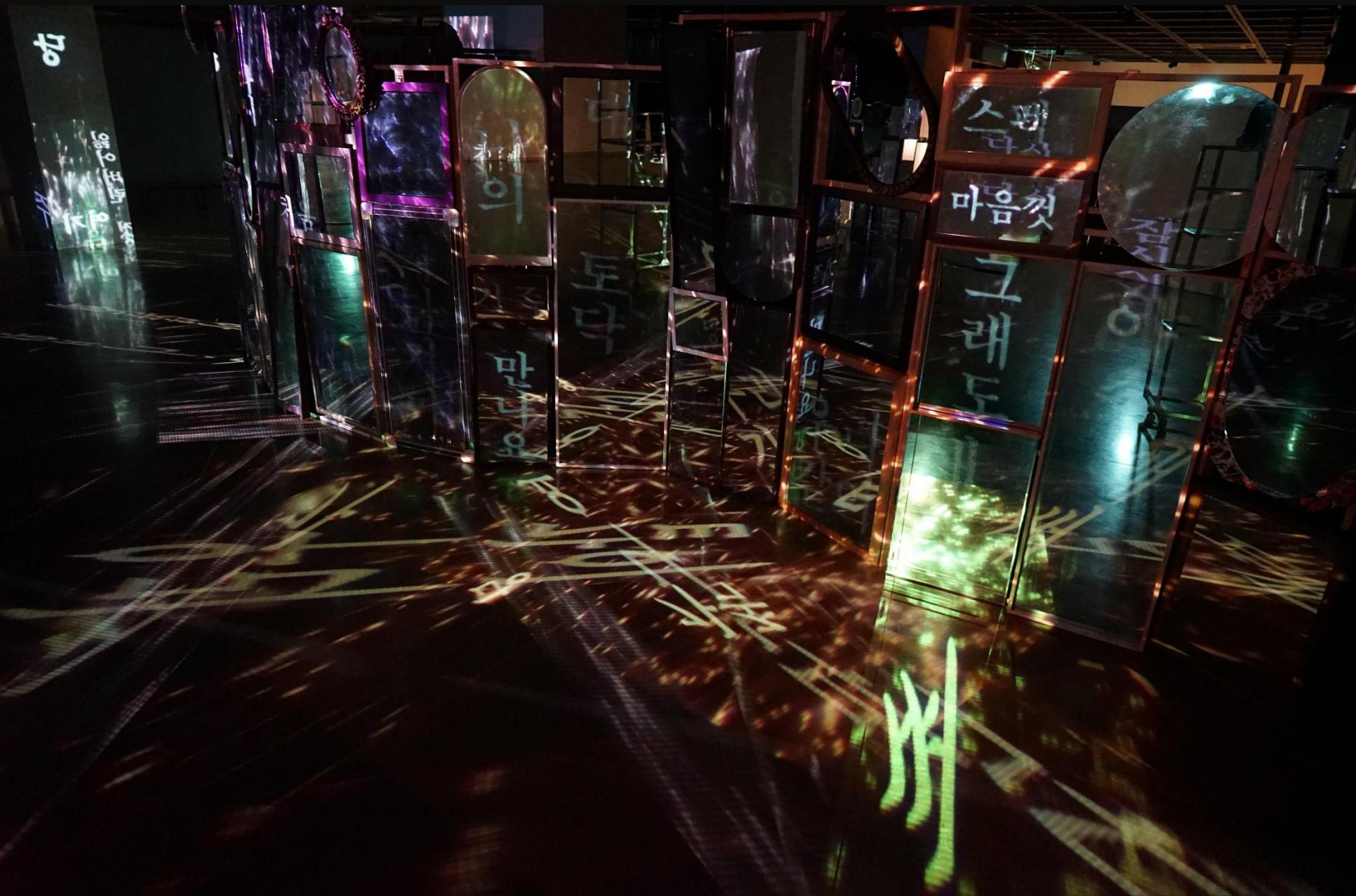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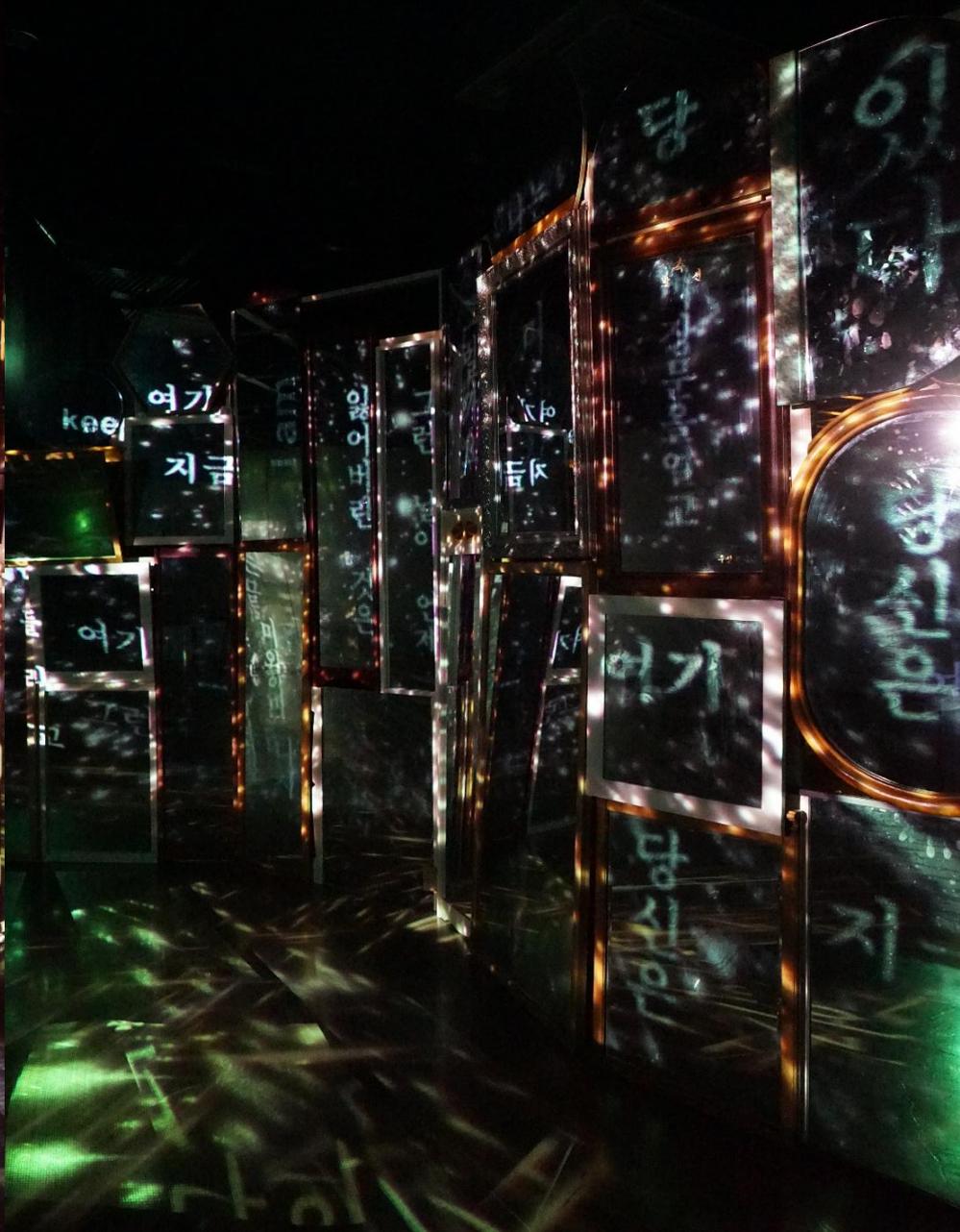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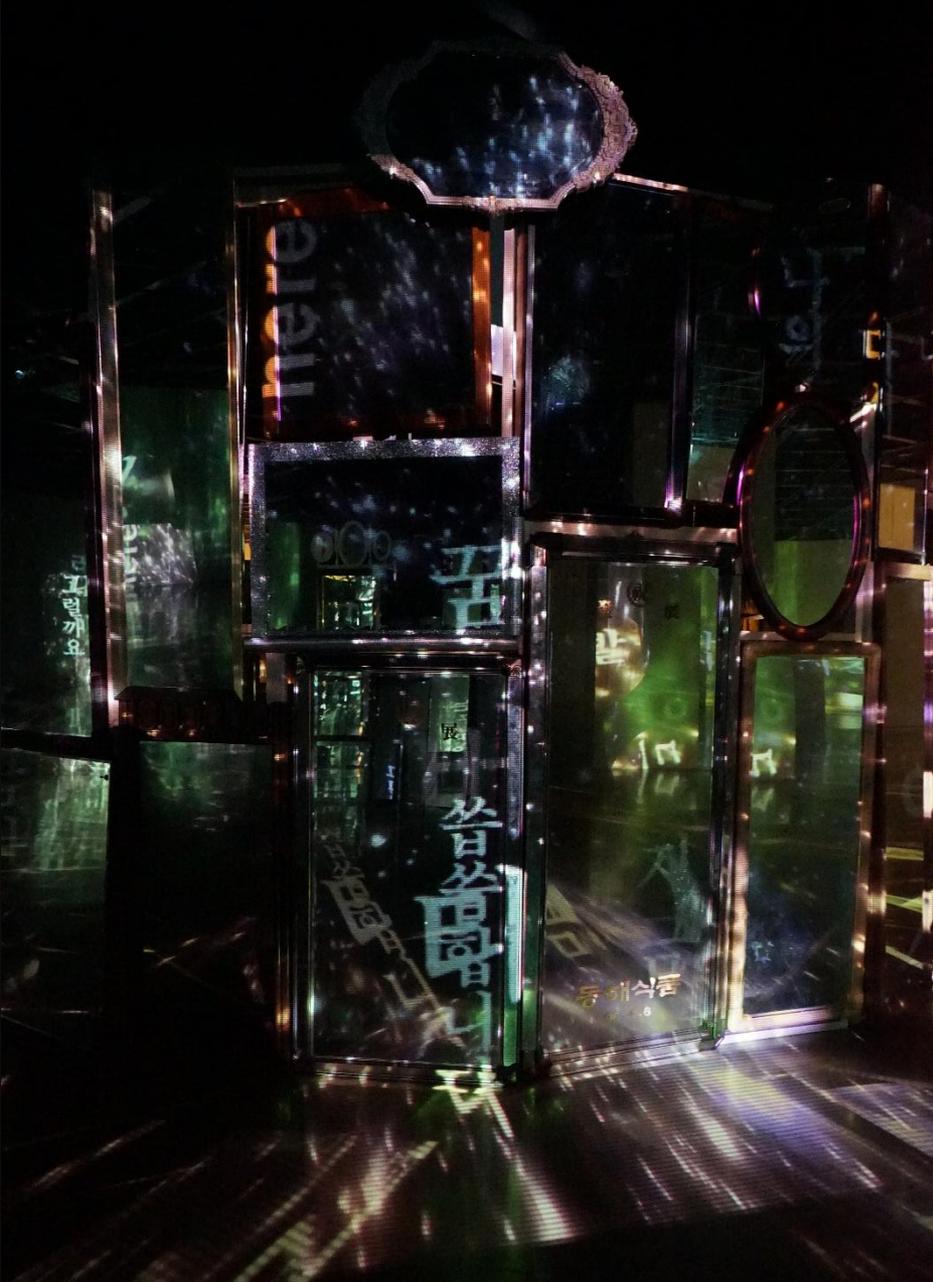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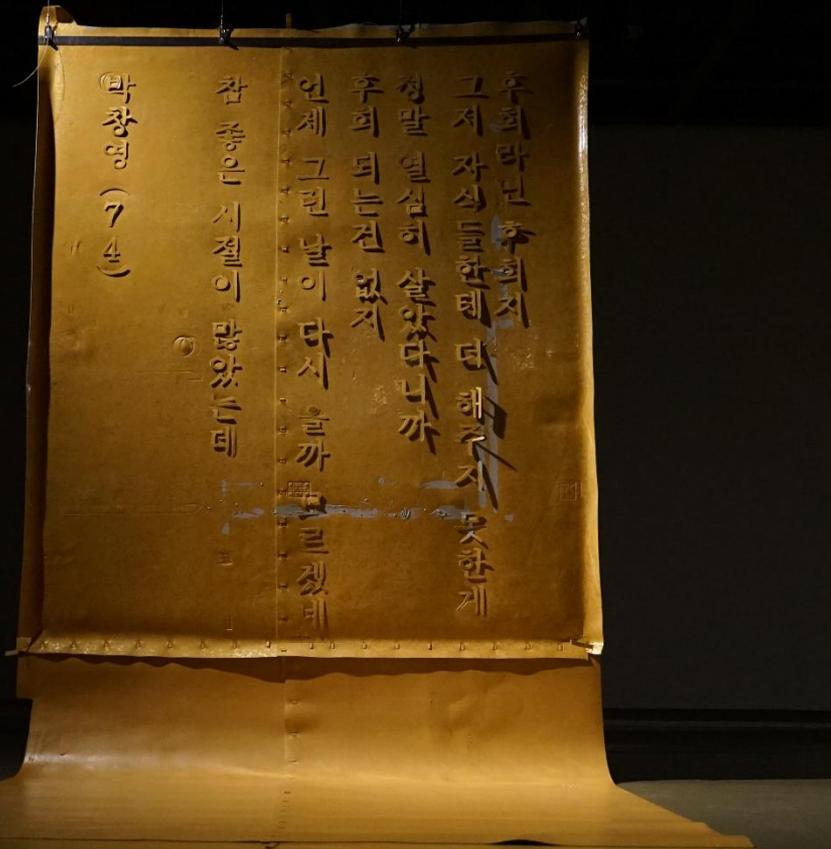






Oblivion, Imprinted 2021 / Flooring materials collected from living space of elderly people, wire, aluminum panel, wood / Variable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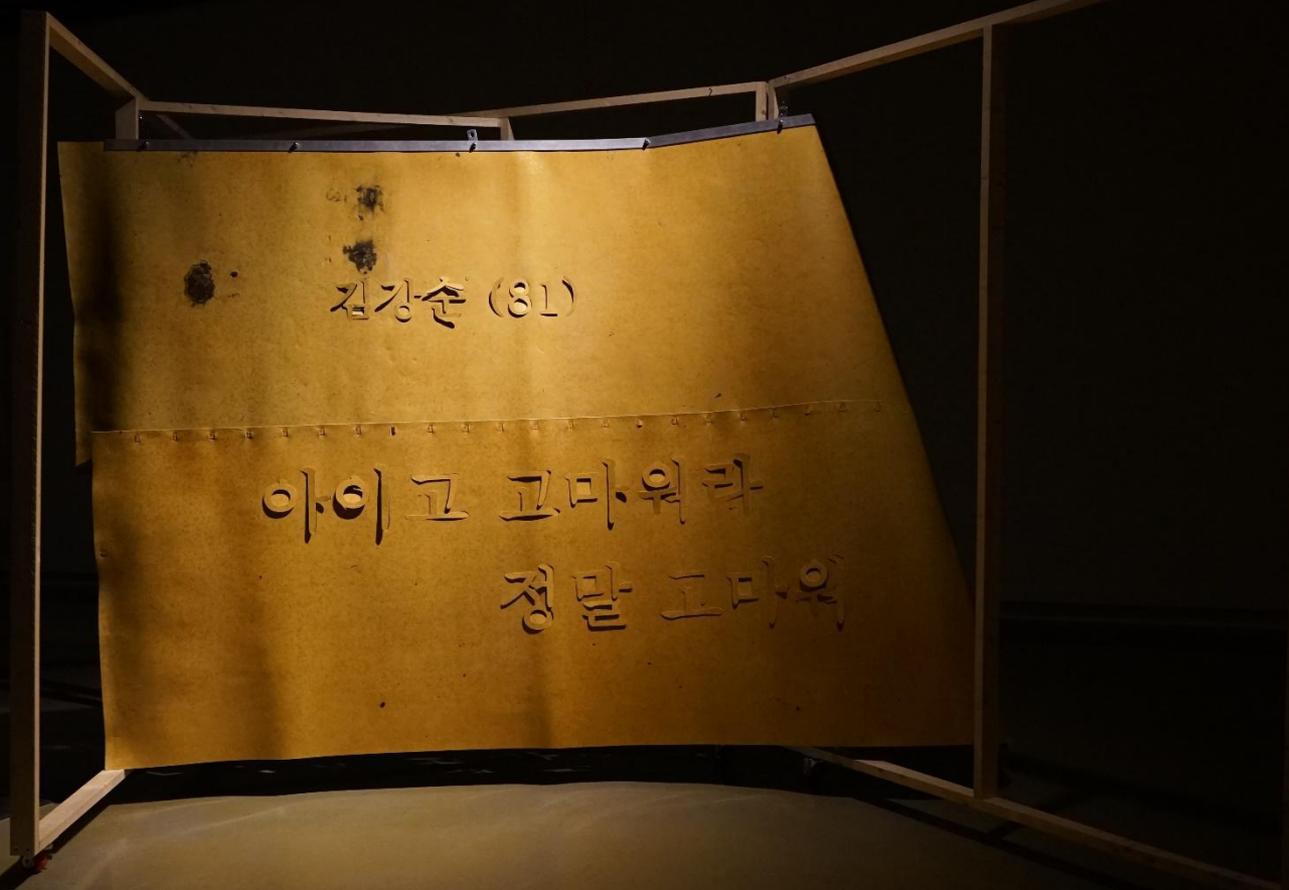
매일 나를 스쳐지나는 주변의 삶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는 보통의 삶을 기억 함으로서 다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막창명 (74)

후회라니 후회지
그저 자식들한테 더 해주지 못한게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까
후회되는건 없지
언제 그런날이 다시 올까 모르겠네
참 좋은 시절이 많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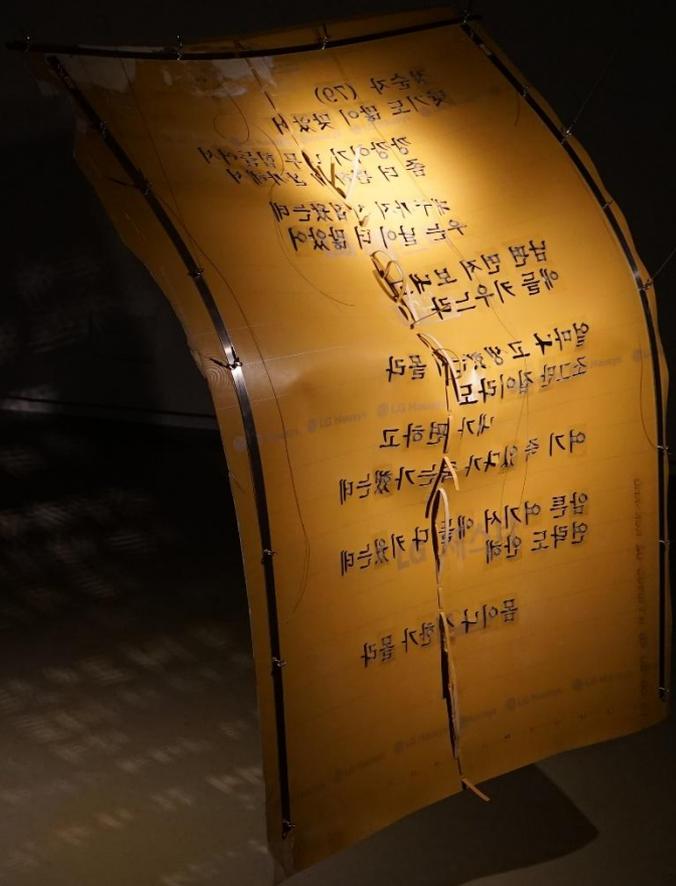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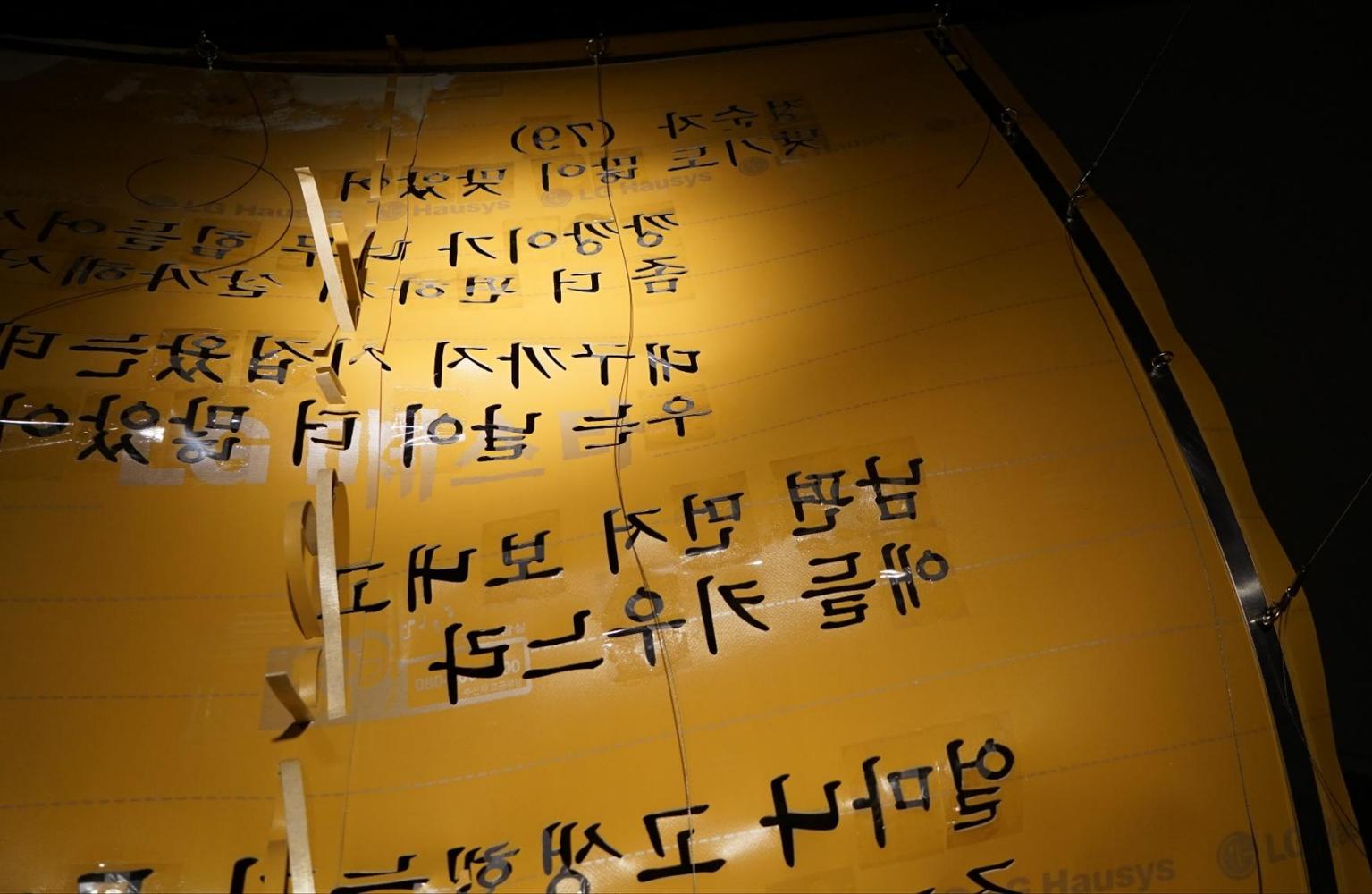


그걸 뭘 알고 싶어
정말 뭘 물어볼 일 없이 살았어

이름 석자는 알려줄게
이공백

이제 나 죽고 나서나
황이 권이 탁할거냐





Critic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연민

- 최원규의 '망각의 각인'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장판들은 최원규가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에 있던 2021년 이후 시내 곳곳에서 모은 것들이다. 최원규는 길을 걷다 어르신들을 보면 다가가 **말을 거는** 그런 사람이다. 공원에서 종일 햇볕 한 조각을 모으는 분이든, 골목길에서 의자도 평상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 이야기하는 분이든, 거리에서 콩나물과 푸성귀를 파는 분이든. 최원규는 스스럼없이 다가가 곁에 앉아 콩나물을 팔아드리고 마치 원래 잘 아는 사이라도 되듯 말을 건다. 최원규는 2020년 첫 레지던시였던 부산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혹은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옛 장판을 처리하는 분을 따라 들어간 어르신들의 집에서 일을 돕고 이야기를 듣다가, 장판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원규는 어르신들과 나눈 이야기를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그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 하나의 생명처럼 스스로를 형성하는 시점이 오면,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다시 받아적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장판에 적힌 말은 어르신의 것이자 또한 최원규의 것이다.

최원규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이들에게 눈길을 주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이들에게 말을 건다. 그런데, 글을 써야 하는 나는 최원규에게 물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이 **눈에 밝혀서**이다. 왜 눈에 밝히는가? 모르겠다. 만약 꼭 대답을 해야 한다면, 나는 원래 그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가? 글썄, 그분들이 그냥 남들이라기보다는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이런 생각은 아마도 알아주는 이 없이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마음은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는 일산에서의 경험과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인가? 이전까지는 그냥 '생각'을 했지만, 일산 이후로 (작은 일이지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같은)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최원규는 왜 이런 작업을 할까? 아니, 질문은 '제대로' 제기되었던 것일까? 작가 최원규가 아니라, 관객인 당신과 나는 이 전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미셸 푸코는 프랑스 18세기에 ‘가족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재판절차 없이, 지방 행정관의 (자의적) 결정만으로 시민을 구금할 수 있었던’ <봉인장>(lettre de cachet) 제도에 의해 감금된 (그리고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 ‘구금자’에 대한 (대부분 겨우 3~4줄에 불과한) 행정 기록들을 묶어냈다. 푸코는 이를 이견의 여지 없이 **비참한 이들**(*les misérables*)이 등장하는 엄혹한 ‘실존의 연대기’라고 불렀다. 물론 나는 이분들의 삶을 ‘비참하다, 엄혹하다’는 등의 말로 대상화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대상화는 그저 자기 편한 대로, 편의에 따라, 재단하는 ‘규정 폭력’에 다름 아니다. <봉인장>에 의해 감금된 이들에 대한 행정 기록은 ‘관공서의 언어’ 곧 - 아니 에르노의 표현대로 - **폭력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권력자란 규정하는 자이다. 권력이 없는 자란 ‘규정당하는 자’이다. 권력자란 말하고 규정하는 자이다. 권력이 없는 자란 늘 (남들의 말에 의해) ‘규정되는 자’이다. 이들은 말을 잃은 자가 아니라, ‘한 번도 갖지 못한 자’에 더 가깝다(세계의 비참에 대한 ‘인식’은 이런 비참에 기반해서만 작동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요청’한다).

최원규는 이렇게 장판을 받아오고, 때로는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누고 장판을 새것으로 갈아드린다(때로는 산정된 액수를 초과해 사비로 장판을 갈아드리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최원규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이다. 최원규는 대화를 독점하지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지도 않는다(다만 ‘조금 더’ 들을 뿐이다). 최원규는 이들을 작업의 소재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최원규는 자신이 그럴 위험성을 늘 인식하고 조심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원규가 장판 위에 다시 적어놓은 이 이야기들은 사실 몹시도 슬프고 가슴 아픈 말들이다. 부산에서 대구로 시집와 맞기도 울기도 많이 했다는 어르신, 암을 앓고 있었는데도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치료’를 하다 고독사한 어르신(장편에 새겨진 **21/19**라는 숫자는 ‘2021년 무연고자 중 19번째’라는 표식이다)의 삶은 최원규의 작업이 아니었다면 지상에 **한 줄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장판’과 이전의 ‘거울’ 시리즈를 통틀어, 최원규의 작업은 ‘때로 그 앞에서 평정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의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주제를 섬세히 잘 드러내면서도, 결코 독선적이거나 생경한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넉넉히 피해 나간다. 사람들은 때로 삶과 예술이 둘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다만 관념의 착각이자, 지배의 전략일 뿐, 삶과 예술은 결코 둘인 적도, 둘일 수도 없다. 칸트가 갈파한 것처럼, 때로 심미적 아름다움과 윤리적 아름다움은 서로를 넘나든다. 최원규가 우리 앞에 이 ‘장판들’을 펼쳐 보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이, 그리고 예술이, 오직 윤리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동시에** 심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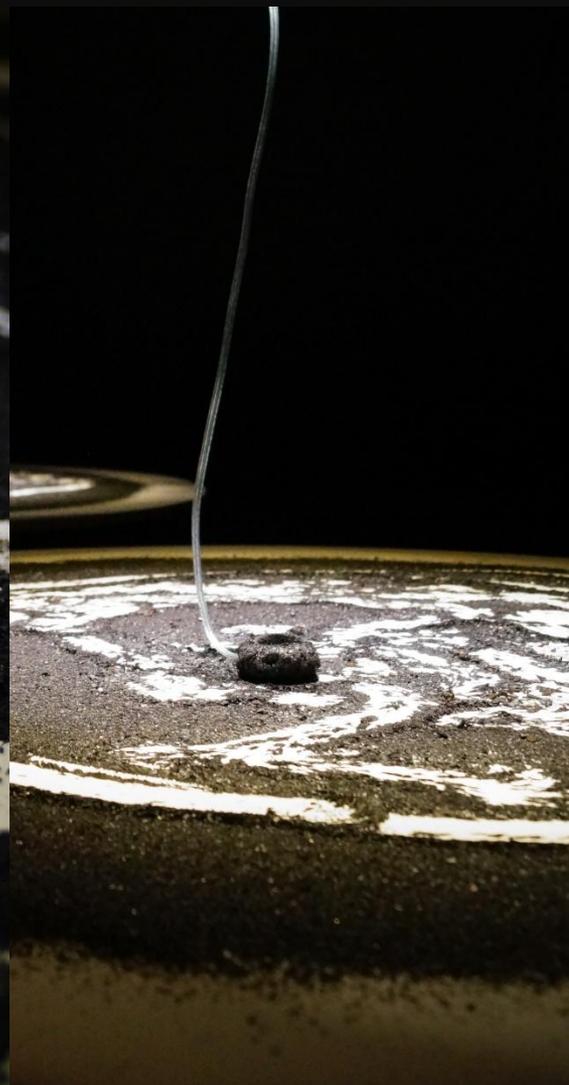
허경 (철학자,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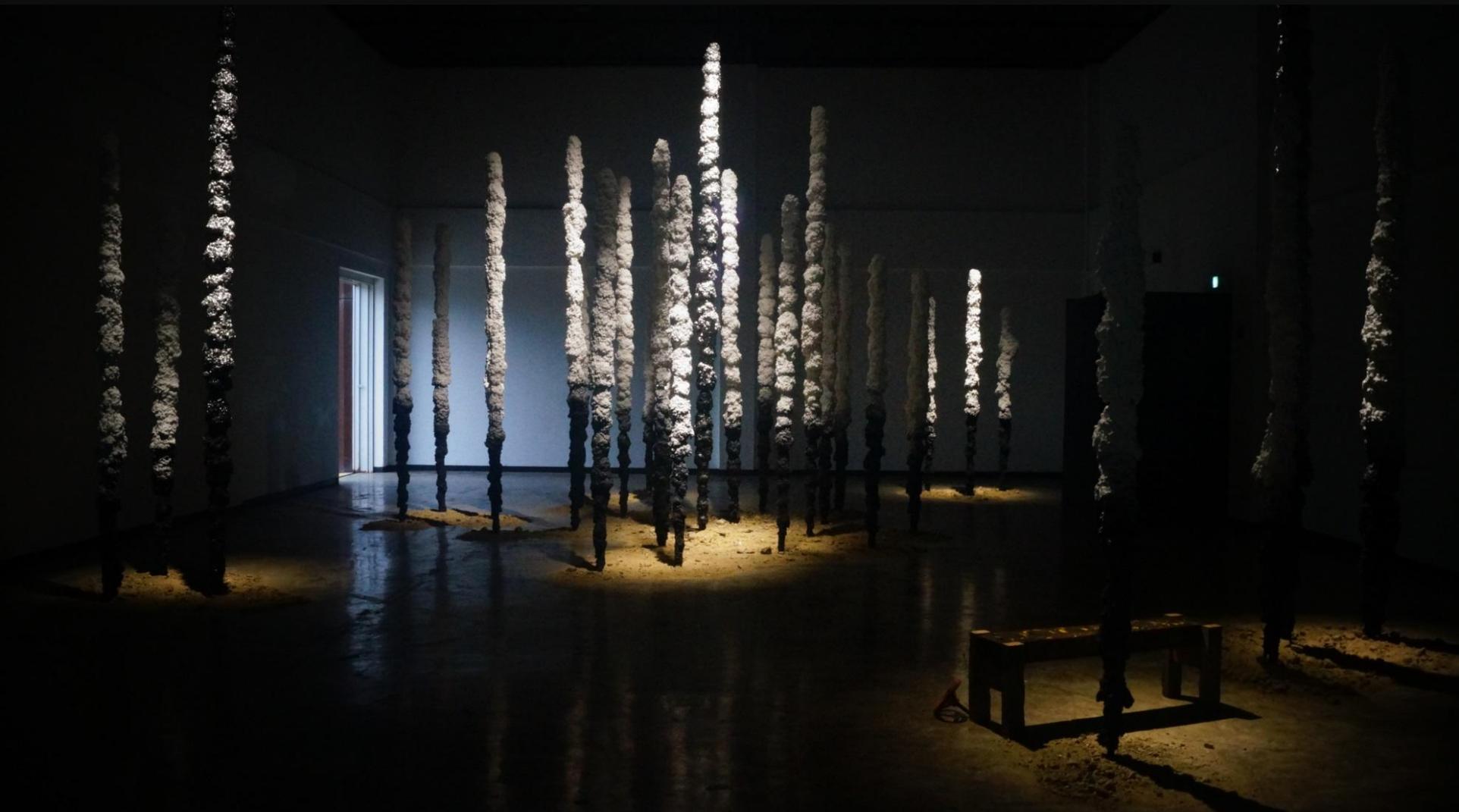


Breath-Lifescape III 2021 / Iron powder collected from ship repair complex, neodium, motor, motion sensor, wood panel, steel pipe

산업단지에서 수합한 철가루는 삶의 상징이자 그것을 반하게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상징한다. 자력의 한계까지 철가루를 끌어 안고 쉽 없이 진동하며 이동하는 구동체는 각자의 운동을 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Exhibition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gpGumJxdxE>





Breath-The forest of oblivion 2020 / Iron and zinc powder collected from ship repair complex, urethane foam, gypsum, acrylic paint, soil collected from demolished factory site / Variable installation

금속 가공 공장의 씬 없는 노동으로 바닥에 떨어진 폐기물을 수합하고 걸러내어 순수한 철가루 만을 입체물의 외피로 구성 함으로서 망각되고 그 주체마저 가지 없다고 치부 해버리기도 하는 삶(노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다시금 확인하고자 하였다.

Exhibition book PDF link https://abf98e44-3bf8-48e6-970f-bc107e335498.filesusr.com/ugd/86cc23_ab23591535924e2a97da601bef94ca04.pdf







Breath-Lifescape II 2020 / Iron powder collected from ship repair complex, wood panel, neodmium, motor, single channel video / Variable installation
운동을 지속하는 자석은 자신의 자력의 한계치까지 들러 붙은 철가루들을 이리 저리 끌며 패널에 이미지를 기록한다.

3 channel preview video link

<https://youtu.be/h3VxO412jLQ>



Just struggling to drag my heavy body back and forth with my helpless arms
그저 힘겹게 두 팔로 자신의 무거운 몸뚱아리를 이리 저리 끌며

Video link 'She just wanted to live'

<https://youtu.be/jxrlEXoLhF0>



Breath-Lifescape I 2020 / Iron powder collected from ship repair complex, linen, medium / 30X30

작가의 왼손은 캔버스를 회전시키고 동시에 붓을 쥐 오른손은 끊임 없이 상하운동을 반복하며 이미지를 만든다.
“무심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내가 만든 이미지는 오롯이 나의 것인가? 나의 의지만으로 서있는 자리인가?”

Video link https://youtu.be/tG_wmFfPN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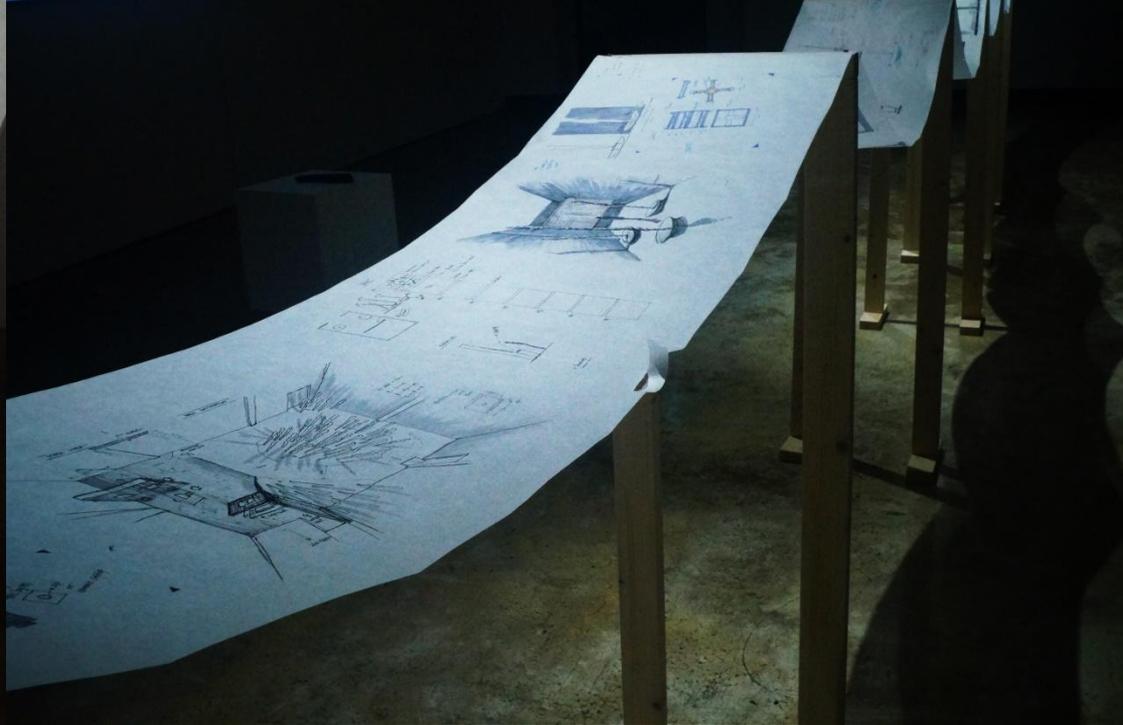
FLOW-The mind gap 2019 / columns and beams collected from the demolished house site, led, acrylic paint, wire / Variable installation

무엇이 되려는 목적도 없이 무엇을 한다. 가는 틈을 메우고 한 겹 두 겹 층을 겹쳐, 감춰 있던 감정을, 오늘을, 내 과거를 함께 묻는다
이는 어느새 새파란 의지가 된다.





Breath-1001000 2020 / Rolled paper, wood, magnet, wire, single channel video / Variable installation
레지던시에서의 100일의 작업 과정을 10m(1000mm)롤의 드로잉과 10(10:00)분의 아카이빙 영상으로 구성한 설치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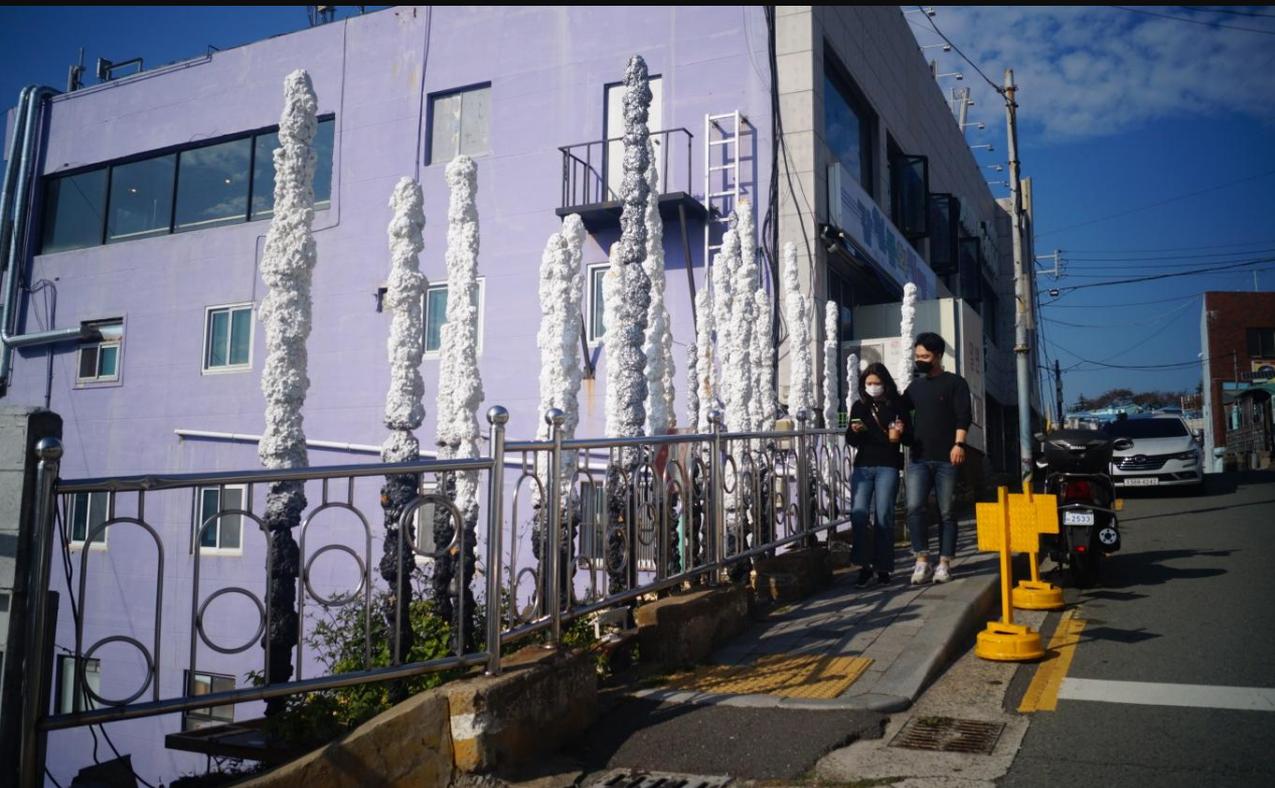
Breath-The way back 2020 / Iron and zinc powder collected from ship repair complex, urethane foam, gypsum, acrylic paint

2020년 8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 (숨 - 귀환)은 대중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작품의 의미를 공유하며, 예술 경험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무지개 공단의 문화공원, 감천 마을, 자갈치 시장을 순회하여 전시하였다.

Video link <https://youtu.be/EYsxnGFFPbE>



아의 설치는 총 2회 진행 되었으며, 1회차(서부산 산업단지내 공원 / 설치기간 -25일)와 2회차(서부산 감전문화마을 내 사유지 / 설치기간 -60일) 로 공공장소에서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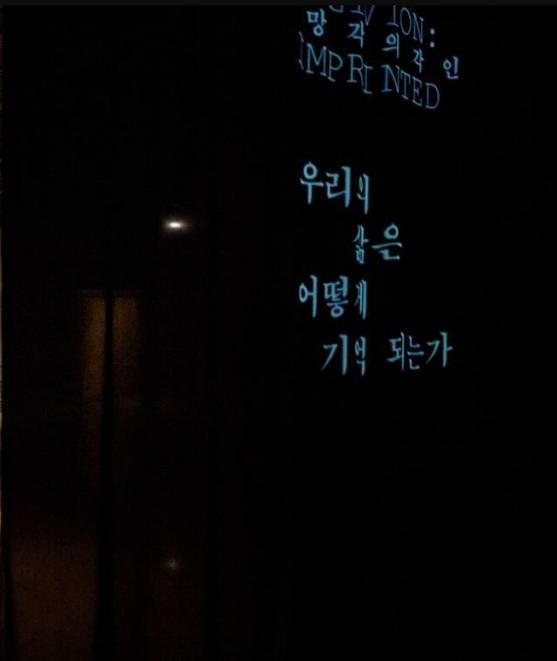


Collaborative work

Relative performance with [Oblivion;Imprinted]

Performer Lee Kahyun

Sound creator Lee Sookhyun



Performance video link

<https://youtu.be/BRqiq9qoxjo>